

연중 제 17주일 (다해)

시편 138 (137)

주 님 제 가 부 르 짖 던 날 당 신 은 응 답 하 셨 나 이 다

1. 주 님 제 마음 다 하여 당 신 을 찬 송 하 나 이 다 제 입 의 말 씀 을 들어 주 시 기 에

천 사 들 앞 에 서 찬 미 노래 부 르 나 이 다 거 륙 한 성 전 앞 에 엎 드 리 나 이 다

2. 당 신 은 자 애 롭 고 진 실 하 시 니 당 신 이 름 찬 송 하 나 이 다 제 가 부 르 짖 던 날

당 신 이 응 답 하 시 고 저 를 당 당 하 게 세 우 시 니 제 영 혼 에 힘 이 솟 았 나 이 다

3. 주 님 은 높 이 계 셔 도 낮 은 이 를 굽 어 보 시 고 멀 리 서 도 교 만 한 자 를 알 아 보 시 나 이 다

제 가 고 난 의 길 을 걷 는 다 해 도 원 수 들의 분 노 막 아 저 를 살 리 시 나 이 다 당 신 은 손 을 뗀 치 시 나 이 다

4. 주 님 은 오 른 손 으로 저 를 구 하 시 나 이 다 나 를 위 하 여 모 든 것 을 이 루 시 리 라

주 님 당 신 자 애 는 영 원 하 시 옵 니 다 당 신 손 수 빚 으 신 것 들 저 버 리 지 마 소 서